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성 요셉성월)
제32권 16호(나해) 2012·3·11

[묵상]

예수님의 성전 정화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살렘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제들과 장사꾼들을 보신 예수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채찍을 휘둘러 다 내 쫓으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치워버리시길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제사에 쓰일 재물도, 성전세도
아버지의 집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아버지께 합당하고 유일한 제사는
하느님의 흠 없는 어린 양,
외아들 예수님 자신의 봉헌입니다.
낡은 구약시대의 엉터리 제사를 없애고
온전한 제사를 위해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예수님의 열성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달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표징을 보여 달라며
하느님이 주신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표징을 삼으신 예수님,
이제는 저희에게 무엇을 치우라고 하실까?
사람 속까지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
저희는 무엇을 숨기고 싶을 것일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저녁미 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애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애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애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모임의 날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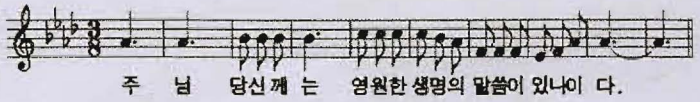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총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정진원
	(생)이원재 베드로, 이순우 베드로 & 심우현 & 심우석
주 일 낮 미사	(연)양건배 비오 & 황옥분, 신태동 요아킴,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김순옥, 민소예 모니카, 김상억 베드로, 이인순, 김동영 베드로, 김태순 데레사, 이인석 요셉, 이귀이
	(생)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이상규 다니엘, 전안나 & 전복래 데레사 가정, 이영희 카타리나, 이정자 아그네스, 한춘선 루시아, 오일순 헬레나, 김교 지미 가정, 최효진 베로니카 가정, 김스텔라, 박흥룡 요셉, 김정희 율리아, 채양석 막시밀리아노 콜베 & 채승희 에스터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0,1-17<또는 20,1-3.7-8.12-17>

화답송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22-25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 음 요한(John) 2,13-25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희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56	156	150
봉헌	255	255	265
성체	307	307	280
파견	233	233	158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느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함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대화로써 그분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삶 자체를 하느님을 향한 움직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해 주는 말들을 주시는 책인 시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상 시편에는 기쁨과 고통, 번민과 희망, 두려움과 망설임 등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하느님 앞에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함께, 인간이 전구 기도(탈출 33,12-16 참조), 승리에 대한 환호의 노래(탈출 15 참조), 또는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데에서 나오는 탄원(예레 20,7-18 참조) 등의 형태로 하느님을 향하는 성경의 많은 본문들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교 계시 전체의 대화적 성격을 확증해 주며, 인간의 삶 전체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느님,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느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부르심 아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하느님 말씀과 신앙

25). " '계시하시는 하느님께'신앙의 순종' (로마 16,26; 참조: 로마1,5; 2코린 10,5-6)을 드러내야 한다. 이로써 인간은'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 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이다." 계시 헌장「하느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들로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인간은 성경 안에 들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에 정신과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상,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내맡기게 하는 믿음은 하느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10,17). 구원역사 전체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믿음 사이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은 한 인격을 만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됩니다. 〈◆계속〉

영(Spirit)과 혼(Soul)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4)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영적"으로 되는지, 진실로 인간영혼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인간 영혼을 '수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성'으로 상상했고, 시인 제널드 맨리 홉킨스는 '불후의 다이아몬드'로 설명했으며,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영혼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아니지만, 영혼의 감추어진 위대함을 말합니다.

삶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신체적, 감정적, 상호관계적, 영적) 성장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은 영을 향하고, 다른 방향은 혼을 향하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 자신의 생명력 있는 야생의, 신비로운 핵심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본질, 인격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Self)의 층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영'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스며들고 생명력을 불어넣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광대하고 영원한 신비를 의미합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사물의 내면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열망을 가지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간 영혼의 갈망은 인간 삶의 핵심이 되는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내면의 삶 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창조적 영역에 온전히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표면적인 삶의 평범한 세상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것과 경험의 핵심적인 실재에 우리의 인식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영역은 빛을 향해 위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고요, 평화, 진정한 본성의 온전함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현재의 순간에 현존하는 지복의 경험과 모든 피조물과의 일치를 도모하게 합니다. 영성의 또 다른 영역은 자기(Self)의 어두운 중심을 향해 아래로 그리고 본성의 비옥한 신비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이성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소명 또는 '불림을 받은' 양상을 뜻하며, 영(spirit)과 혼(soul)은 모든 것에 대한 상호 관련성 즉, 관계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삶 전반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르심을 발견하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은 인간 발달 단계와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요청되는 정의, 사랑, 그리고 치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삶의 상황으로부터 옵니다. 프레드릭 부에크너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충만한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증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혼(soul)의 가장 깊은 내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영(spirit)의 감흥을 받아 사회적으로 투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머릿결을 곱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을 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순수하고 완전하려면, 모든 것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아주 숭고한 동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16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23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30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긍봉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시다. 애긍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5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3월27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 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보속 : ㉠요한묵시록 통독 ㉡선행1회 ㉢주모경기도 등 세보속 중 두가지 선택

◈ 본당신부님 출장 판공성사 중 평일미사 시간 변경
- 3월22일(목)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3월28일(수)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3월29일(목)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오늘 주일(11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됐습니다
표준시간(윈터타임)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하는 셈입니다. 춘곤증이 다가오는 계절, 각자 신체리듬을 조절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유의합시다.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미사 후 12시50분
- 장소 : 사제관 앞마당

◈ 백삼위 탁구 동호회 첫모임에 초대합니다.
- 첫모임 : 오늘 주일(11일) 오후 3시 강당
- 회원모집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 오후 3시~6시30분, 주일 오후 3시~7시 강당 및 유아실
- 회비 : $60(2012년 3월~2013년 6월)
- 거울 기증(전신용 또는 반신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사순절 특강
- 일시 : 3월14일(수), 15일(목) 저녁미사 후, 성전
- 강사 : 이연학 요나 신부(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소속)
- 레지오회합과 단체모임은 다른 시간에 옮겨주시고 특강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받아드리는 예식
- 일시 : 3월21일(수) 저녁미사 중
- 세례식 예정 :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960

◈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25일(주일) 오후 1시30분,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고, 악의 세력과 싸울 힘과 용기를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한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필히 참석해주십시오.(점심제공)

◈ 2013년 로즈퍼레이드 참가, PAVA 사물놀이 단원 모집
미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새해첫날 행사인 패사디나 로즈퍼레이드에 PAVA(자연환경비영리자원봉사단체)가 주관하는 한인사물놀이팀이 참가합니다.
단원 연습시간은 자원봉사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8학년~12학년 * 문의 : 제니 리 ☎(310)749-745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11일(주일) : 토런스 남2,3반(김치찌개 $3) 주일학교 K, 1학년(짜장밥)
- 3월18일(주일) : P.V. 2반(육개장 : $3) 주일학교 11,12학년(스파게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윤철 강인모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양금 김영경 김옥보 김옥찬 김 용 김 욱
김종렬 김종문 김진숙 김철민 남명자 노찬술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상원 박상준 박써니 박인식 박종민
박종열 박주현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송기철 송재훈
신경훈 안재만 오명섭 오수인 오일순 윤영훈 윤화경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남현 이명자 이병찬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재승 이효세 장영우 전동훈 전정일
정광미 정동호 정열모 조화숙 최재은 최태훈 한혁수
한혜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5,195

미사헌금 : $3,051

성전헌금

강순복 강윤철 강인모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 용 김 욱 김종문 김철민
남명자 노찬술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상원 박써니
박인식 박종열 박주현 방정복 석순영 송기철 신경훈
안재만 오수인 윤영훈 윤화경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남현 이명자 이병찬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효세
장영우 전동훈 전정일 정동호 정열모 조화숙 최재은
최태훈 한혁수 한혜숙 영희가보라

합계 : $3,190

달력광고후원 : $450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시간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 장소 :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두 학년씩 진행합니다.
  * 11일 : 7,8학년 * 18일: 5,6학년 * 25일 : 3,4학년
  * 4월1일 : 유치부,1,2학년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3월말까지**
- 기간 : 지난 2월1일(수)부터 쓰기 시작한 성경을 3월31일(토)까지 계속합니다.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선홍 교무주임 ☎(424)903-6637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3월31일까지(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행동하는 사랑학교(Love in Action School)에 초대합니다.**
- 장소 : 한국 음성꽃동네 봉사체험
- 일시 : 1차 5월20~27일, 2차 10월7~14일
- 신청비 : $300(항공료는 각자 부담)
- 참가신청 : www.loveinaction.kr

남가주 소식

◈ **사우스베이 러닝팀 회원모집 안내**
- 장소 : 토런스 사우스 하이스쿨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건강을 위해서 걷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최현찬 안드레아 ☎(310)938-0848

◈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3/7(수)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81-0787* *3/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17(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정남형 알베르또 791-1374* *3/1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3/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3/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행선 율리안나 634-6923* *3/8(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3* *3/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10(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오영섭 스태파노 891-3688* *3/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8(금) 오후 7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3/10(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3/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꽃향기와 생선비린내

'인간의 본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 삶의 모습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각각 주장했던 맹자와 순자, <걸리버 여행기>에서 야생 상태의 인간을 하등하게 여겼던 조너선 스위프트와 사람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미켈란젤로 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많은 이들을 격한 논쟁의 장으로 이끌곤 했습니다.

오늘은, 먼 나라 경전에 인간 본성에 관한 흥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낙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근처에 있는 꽃집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딱한 상황에 처한 그녀를 정원 가까이 있는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도록 했습니다. 생선장수는매우 감사해 하며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그녀는 곧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비릿한 냄새를 맡고 살던 그녀에게 방 안 가득 채운 향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한 꽃향기는 생선장수 여인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궁리 끝에, 그녀는 빈 생선 바구니에다가 물을 뿌려서 자기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원전에는 생선장수 여인을 '본능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습관의 힘과 영향력은 무척 지독한 것이므로,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꽃향기와 같은 정신적 향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생선장수 여인은,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한 것이 주어져도 자신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남루한' 정서에 친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선비린내가 천한 것이고 꽃향기가 고귀하다는 것은 사회가 스스로 정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선장수 여인은 자신의 본성에 귀를 기울여,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아우구스티노 /
시인, 한국가톨릭문인회 회장

☞ 이건 알아두세요.

신앙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당에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게 많은지요?

주님의 계명에 충실하려는 형제님의 다짐에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매일 꼼꼼히 기록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군요. 기쁨과 감사를 일일이 기억하는 일은 하느님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행동을 채점하는 분으로 곡해한 시점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줄 것이니까요.

그분의 명령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향기롭게 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점은 명심할 일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제사와 기도가 있다는 분명한 이르심이니까요.

미사 참례 중에는 살아계신 그분의 현존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분께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한 예의가 무조건 '읍'하는 굴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 그분의 눈앞에서만 굽실대는 비굴한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계명과 겉치레에 묶여 있다면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을 뵙고 '이 모습 이대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세요. '무조건적인 믿음' 만이 영혼의 자유를 선물하여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